

안젤리나 졸리 “아들 한국 두고 오며 눈물”

배우 안젤리나 졸리(왼쪽)가 아들 매덕스(오른쪽)를 한국에 두고 오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24일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매덕스와 헤어지며 속으로 ‘울어서 아이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6번은 뒤돌아본 것 같다. 매덕스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덕스가 알게 돼 기쁘다. 아들이 보고 싶다. 비행기 표를 끊은 것은 아니지만 곧 다시 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18일 매덕스의 연세대학교 입학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3박 4일간 서울에 머문 후 21일 한국을 떠났다.

한편 매덕스는 지난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연세대 국제학부 언더우드 국제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날 매덕스는 입학식에 함께 참석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연



스러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매덕스는 1년 간 연세대 송도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낸 뒤 신촌 캠퍼스에서 생활한다.

매덕스는 안젤리나 졸리가 지난 2002년 캄보디아에서 입학한 첫 아들이다. 매덕스는 미국의 다른 학교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K팝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의 대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리는 지난해 11월 매덕스와 함께 연세대 캠퍼스 투어 한 바 있다.

NCT 127, 미 자선공연 출연



그룹 NCT 127이 미국 대규모 자선 공연 ‘2019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Global Citizen Festival)에 출연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127은 9월 28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 K팝 가수로는 처음 출연한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단체 ‘글로벌 파버티 프로젝트’ (Global Poverty Project)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한 자선 음악 축제이다. 올해는 NCT 127을 비롯해 퀸, 애덤 램버트, 얼리샤 키스, 패럴 윌리엄스, 원리퍼블릭, 휴 잭맨 등 세계적인 가수와 배우들이 참석한다.

이날 공연은 미국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 MSNBC 방송과 유튜브, SNS 채널 등에서 생중계된다.

NCT 127은 지난 5월 발표한 미니앨범 ‘NCT #127 위아 슈퍼휴먼’ (WE ARE SUPERHUMAN)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11위에 올랐다.

디즈니+, 월 6.99달러에 고화질 서비스

디즈니가 11월 출시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의 월 이용료를 동종 서비스 넷플릭스보다 싸게 책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즈니는 이 상품의 기본 상품인 고화질(HD) 서비스를 월 6.99달러에 제공한다. 이에 대해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6일 “이는 넷플릭스를 포함해 늘어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기본 상품에서 H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디즈니는 방대한 영화와 TV 쇼를 4K(HD보다 화소 수가 4배 많은 초고화질)에 명암 대비를 높여 화면에 생동감을 더하는 HDR(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돌비 애트모스 등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기본 상품 가격은 월 8.99달러로 디즈니+가 예고한 기본 상품보다 비싸다. 넷플릭스는 HD 화질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13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디즈니



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아 시청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디즈니+의 기본 상품은 주로 어린이와 가족 시청자를 겨냥할 예정이지만 넷플릭스는 이보다 좀 더 폭넓은 콘텐츠를 갖고 시청자 일반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또 스포츠 채널 ‘ESPN+’와 광고가 나오는 ‘홀루’를 포함한 디즈니+ 구독료는 넷플릭스의 HD 요금제와 똑같은 월 12.99달러가 될 예정이다.

1279호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사업도 때에 맞추어야 성공한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어느 중년신사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상담한 내용이다. 먼저 필자가 아들의 사주(四柱)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아드님은 원래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공직(公職)이나 대기업과 인연해서 활동해야 되는 팔자가 되는데 현재의 운(運)의 흐름이 직장운이 좋지 못한 흐름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자식이 그래도 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했는데 오랫동안 직장을 잡지 못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하도 딱해서 제가 용자라도 해서 자식에게 밀천을 대주고 사업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제 자식의 사업운이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드님은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훗날 반드시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그 때부터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신사분이 묻는 이야기가 “정말로 지금은 제 자식의 사업운이 좋지 못한가요?”라고 심각하게 묻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이야기는 “아드님의 사업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운(運)의 흐름이 겨울에 해당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아도 싹이 트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다 보면 계절의 흐름에 따라 훗날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원장님께 이렇게 미리 상담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전한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 청해역학학술원